

97년도 하반기 경제전망과 주류산업의 진로 모색



강 신 일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I. 97년도 하반기 경제전망

97년도 1/4분기 GDP성장율은 95년 이후 가장 낮은 5.4%이었다. 2/4분기에는 한보그룹, 진로그룹, 삼미그룹 등의 부도 여파로 정치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그 파장이 예상보다는 작아 완만하게 진정되는 듯하였고 또한 6월말의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어 97년도 하반기에는 경기가 저점에 가까이 왔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으나 7월에 들어 기아그룹의 부도 사태 이후 신용시장의 경색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어음 부도율이 0.23%정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7월말의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다. 오히려 4월의 부도방지협약 발효후 금융권의 부실 대·중소기업의 무차별적인 자금상환으로 경기는 실물시장 및 금융시장을 포함한 복합적 불황에 가까이 오고 있는 듯하다.

금융시장의 경색은 실물투자의 감소, 민간 소비의 둔화 지속, 산업생산감소 및 재고증가 추세가 이어져 실물시장의 불안을 가져와 복합 불황의 발생을 우려할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적절한 미시정책 및 거시정책에 따라 낙관적으로 예상을 하여도 경기 저점에 접근이 97년도 4/4분기 또는 98년도 1/4분기에 가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

■ 目 次 ■

- I. 97년도 하반기 경제전망
- II. 주류산업의 進路 모색

배적이다. 특히 수출산업보다는 내수산업의 경기둔화에 대한 파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다.

97년도 세계 경제는 미국 및 중남미 국가들의 경기호조지속과 일본 서유럽국들의 완만한 경제회복과 더불어 연간 3%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아 종전의 2%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한 수준으로 예측이 된다. 국내경제는 하반기 이후 소비와 투자의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엔화의 강세로 수출 회복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호재인 엔화의 강세는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기아그룹이 부도방지협약 대상에 이르게 됨에 따라 자금경색이 3/4분기 이후의 경기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자금난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금난 해소는 부도방지는 물론 투자재원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연말의 대선에 따른 정치논리의 경제지배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의 자생적 회복능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불황 지속은 구조적인 요인들인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 비효율적인 기업체질과 산업구조, 빈약한 자본재산업, 과도한 정부규제, 비효율적인 세무행정, 비생산적인 금융산업 등과 경제환경적 요인인 원화 환율절하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97년도 하반기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엔고에 따라 수출이 증가되고 노동시장의 안정등으로 경기에 호조조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요의 감소, 설비투자의 감소 등으로 경기의 부정적인 면도 도사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소인 수출조건이 되살아난다. 하더라도 기아 사태의 파장과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회복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97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의 경기침체는 경기순환주기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상실과 그 구조적인 결함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여기에 아울러 정부의 안이한 경기대책이 경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지난 96년말의 정부의 경기조절 실패로 1년간의 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향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몇가지 중요한 거시적, 미시적 요인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정부의 거시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상황은 내수부진에 의한 체감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경기하강국면이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하반기 거시경제 운용은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혹 경기부양으로 인해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이완되리라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환경 변화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기업들이 어디 있겠는가? 현재의 4.5% 물가 상승률은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라 판단되어 과도한 물가안정대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SOC투자증대 등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를 현재의 경기불황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실기시 우리의 경제는 복합 불황의 골짜기로 갈 가능성을 배제치 못한다.

둘째로 비생산적인 금융기관이다. 생산성 및 효율성에 있어 선진제국의 금융기관과는 경쟁이 되지 못하며 금융관행에 있어 신용거래보다는 담보대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비생산성은 최근의 부도방지협약의 실시로 부채비율이 높은 일부 대기업 및 관련업체의 어음할인 기피 또는 자금회수 등으로 자금시장의 경색을 가져오게 되는 예를 볼 수가 있다. 금융개혁이 이익집단정치 때문에 제

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금융개혁 일정은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고비용 구조이다. 高이자율, 高地價, 高임금, 高환율, 및 高물류비용 등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자금 경색이 겹쳐 최근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물류단지의 투자, 환율의 고평가의 조정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의 활성화와 노력증대,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현실적인 교육 개혁 마련 및 자동화 추진 지속,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노력 및 이자율 조정을 위한 환율정책과 금융개혁의 조속한 실시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 일정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더 이상 환부가 곪아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방치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 정책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고비용구조도 빠른 시일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넷째로 비효율적인 기업체질과 산업구조이다. 시장경쟁이 없어 과고용, 과투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시장의 독점을 경쟁시장으로 변화토록 노력하며 기업들의 기업조직도 기업유지 및 거래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하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 기업의 독점구조의 경쟁화는 불필요한 사업의 진출을 억제하리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독점이윤이 없으며 기업은 정당한 수익률이 있는 곳만 투자하기 때문이다. 삼미 및 기아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전문화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듯 하다. 시장에서 기업 자체의 판단에 따른 기업체질개선과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된다.

다섯째로 빈약한 자본재 산업이다. 21세기의 산업구조는 자본재 산업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 기업의 투자자금활성화를 위해 종전의 간접 금융방식을 지양하고 기업이 직

접적으로 자금을 조달 가능토록 하기 위해 증권시장,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섯째로 과도한 정부규제이다. 토지, 금융 및 노동분야 있어 우리나라만큼 규제가 많은 나라는 신흥공업국가중에서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의 규제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있었으나 사회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계속적인 규제를 정부가 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또한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의 철폐가 필요하다. 아울러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는 철폐하여야 한다.

일곱째로 비효율적인 세무행정이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세무서를 제일 무서워 한다. 왜냐하면 조세탈루를 조장할 많은 감면 조항이 있어 담당자의 자의성이 많이 작용하므로 세무서를 무서워한다. 따라서 자료누출발생, 무자료 시장성행, 어음발생 빈도확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세무행정의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덟째로 경제정책에 있어 정치논리의 지배이다. 경제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마찰과 같은 경우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성장 후배분이 현재에서는 절실한 과제라 생각된다. 특히 대선 등 금년도 하반기의 정치일정에 의하여 후보들의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올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정책의 집행에 있어 경쟁논리보다는 정치논리의 지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쟁활성화, 가격자유화, 규제철폐 등의 구조개혁방향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여 정치권의 경제정책의 간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II. 주류산업의 進路 모색

주류산업은 현재 국내의 경제환경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통업의 개방화가

곧 이루어지고 국내경쟁이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수경기는 부진한 상태이다. 특히 메이저 3사(진로, OB, 조선)의 상품별 경쟁 및 새로운 사업영역 등에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소비자는 보다 더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소비할 수가 있어 좋으나 주류산업 자체에서는 상당한 제조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주류산업은 전통적인 식료품 산업으로 수출보다는 내수산업이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또한 원료에 있어 1차 산업에 의존하다 보니 가격의 불안정과 수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2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97년도 하반기에는 주류산업의 경우 내수의 부진이 더욱더 심각할 것으로 보아 97년도 상반기보다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진로그룹이 부도방지협약의 대상기업이 되었다. 주력기업인 주류제조업 및 유통업 이외의 기업은 매각 예정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주류제품의 시장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류산업의 구조조정은 경쟁이 시작되었던 때인 1990년 초에 이루어져야 했었다. 그이후 소비패턴의 변화, 정보화 및 Globalization의 지속으로 인해 현재의 상태에서의 주류산업의 구조조정 비용은 과거보다는 더 큰 것은 사실이다. 지금이야말로 주류산업의 변신이 필요한 때이다. 제품의 차별화 전략, 기업조직의 개편, 신 산업 및 신 기술의 개발 및 새로운 기업제휴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수출 주력기업만 중점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식품산업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식품산업은 소위 Agribusiness라 하여 1차 산업인 농업 및 수산업과 연결하여 발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다. 식품가공산업, 유통업 및 외식산업등 식품 관련산업

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연일 정부 및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진로의 경우 그리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기업(?)이 아니기 때문인가 아니면 수출주력산업이 아니기 때문인가? 여하튼 주류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관심도에서 볼 때 주류산업에는 농업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물론 주류산업내 기업들도 자유경쟁 논리를 적용하여 무국경시대에 맞도록 기업이 경영합리화,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대하여 감으로써 외국상품과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조성되고 국내시장에서도 소비자 선택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의 재벌에 대한 규제는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품업계가 주력산업인 기업군도 포함되어 있다. 재벌에 대한 규제는 5대기업 집단에 국한하고 나머지 기업군들은 자유로운 투자 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물론 5대 기업군에 국한하는 각종규제도 기업활동 관련규제는 대폭 하향조정하고 소유권 및 경영권에 관한 규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해야 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기간내 기업처분문제, 인력조정문제, M&A관련 제도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소득의 증가로 인해 식생활의 소비패턴이 다양화되고 있다. 술 소비에 있어서는 성인병 등에 대한 건강염려가 증대되고 있어 현행의 제품 만으로는 판매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소비패턴에 따른 새로운 품질의 주류가 개발 육성되어야 한다. Low alcohol, 한약재 첨가 등에 대한 제품개발이다. 또한 주류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래의 생산과 가공단계에서 판매단계를 추가시켜 소비

자에게 서비스화된 주류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외식산업에의 진출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비관련 다각화보다는 생산 가공 및 판매가 가능한 수직적 통합구조의 필요성이 있다. 경영상의 비교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과감한 매각 및 정리가 필요하다. 기업의 M & A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벌에 대한 규제 및 금융시장의 건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제품의 차별화에 있어 상당한 변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제품과 선진국의 제품에 있어 우리의 제품의 세계적 평가는 중간 정도로 보여지고 있다. 가격면에서도 중간 수준으로 판단된다. 개발도상국가들의 상당한 추격은 생산비용의 상대적인 저하로 인해 가능하였고 선진제국의 경우 선진기술과 고가격 유지전략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다.

현재의 제품의 Upgrading과 고 가격 정책이 필요한 때인지 아니면 저 가격 정책을 고수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현재의 생산비용을 더욱더 절감하려는 자동화전략을 쓸 것인가 중요한 전략적 선택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 신기술의 개발중대로 현재의 제품의 Upgrading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독일의 Mercedes 자동차처럼 고가전략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소비자들에게 경쟁회사의 제품보다는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더욱이 Globalization하에서는 종전의 이윤극대화 및 시장점유율 극대화전략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HDTV (highdensity TV.)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제품기술을 말한다. 또한 Globalization하에서는 무역하는 방법도 습득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오마에 겐이치는 Globalization하에서 기업들은 다섯까지의 "C"의 변화를 주시하고 그에 따른 기업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섯의 "C"란 소비자(consumer), 경쟁(competition), 기업(company), 통화 또는 환율(currency) 및 국가(country)등 5개의 "C"이다.

대외 환경 변화 추세와 구조조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주류산업의 경우 오마에 겐이치의 5개의 "C"의 변화 추세에 따라 주류제조업체들이 향후 추진해야 할 기업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소비자(consumer)의 변화이다. 미래의 소비자들은 상품을 선택시 더 이상 어떤 국가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품의 질을 선택한다고 예측할 수가 있다면 기업들은 소비자집단의 증가로 인한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팔릴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고 성장전략을 유지하여도 무난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경쟁(competition) 대상의 변화이다. 최근의 상품들은 여러가지의 기술의 복합체로 나타나고 있어 단 1개의 기업이 모든 기술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경우에도 Major회사간이든 중소 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계의 제휴전략은 경쟁적제휴전략으로 기업간 상호작용은 잘 되나 서로간의 갈등문제는 야기될 수 있다.

주류업계의 경우 새 기술개발의 위험부담, 시너지효과 극대화 및 시장접근방식 등의 목적으로 전략적제휴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산 GE사와 프랑스의 SNECMA사와의 차세대 제트엔진 개발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자본, 연구, 능력, 생산, 시설을 공유하듯이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휴전략이 필요하며 또는 시장접근과 입지확보를 위해 일본의 도시바사의 경우처럼 미국

시장에서의 진입을 위해 웨스팅 하우스사, AT&T사,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사, 유럽시장에서의 올리벤티사, 지멘스사와 제휴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을 할 수도 있다.

셋째로 기업(company)이 당면한 목표의 변화이다. 기업의 자동화실시 등은 기업들에게 있어 고정비용의 증대와 이와 아울러 가변비용의 축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임금조정을 통한 가변비용 최소화 문제보다는 고정비용의 빠른 시일내 회수가 문제가 되게 된다. 특히 향후 R&D 개발비용, 기업브랜드

홍보비용 등의 고정비용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 원재료 및 노동비용의 절감이 더 이상의 기업 목표가 되지 않는다. 기업은 전체 고정비용의 단위당 비용부담 분산을 위해 시장을 넓히는 성장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넷째와 다섯째는 환율(currency)과 국가(country)이다. Globalization에서는 국가간 무역과 이에 따른 환율 변화도 중요하다. 우리의 기업 역시 무역과 환율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금융, 국제경제 및 무역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

大人不可不畏. 畏大人則無放逸之心. 小民亦不可不畏. 畏小民則無豪橫之名.

대인을 두려워하라.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종한 마음이 없어지리라. 소인도 또한 두려워하라. 소인을 두려워하면 거만하고 횡포하다는 이름이 없으리라.

- 菜根譚 중에서 -